



원희룡지사·김태석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원 지사 전기차산업 생태계 조성 등 공적 김 의원 제주형 지방의회 모델 확립 평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았다.

원 지사와 김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했다.

원 지사는 전기차산업 생태계 조성 및 블록체인 허브도시 및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 등 미래 전략 분야 추진과 전국 최초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제주더큰내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 받았다.

특히 원 지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민 건강과 안전,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18년 만에 처음으로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를 취하고, 공항만 발열검사 전국 최초 도입, 특별입도절차 추진 등 국경수준의 검역체계를 갖춰 제주도는 현재까지 지역감염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제주의 노력과 열정을 격려하고 더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희룡

김태석

김태석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년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의회 인사권 강화를 위한 개방형 직위 확대 및 인력 증원,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제주형 지방의회 모델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또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 컨퍼런스를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제를 선도하고 성공적 개최와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해 호응을 얻었다.

김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동안 의원 개개인이 왕성한 입법활동과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도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대한민국헌정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복합 증진, 국가미래 전략 수립, 국가 인재 양성에 기여한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선7기 전반기 2년의 공적을 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자는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5명이 선정됐다. 이태윤기자

김숙희 대표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섬 영농조합법인'의 김숙희(사진) 대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섬은 제주지역 농가와 연간 약 15t의 쌀, 좁쌀, 감귤 등을 계약 재배해 농촌 지역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제주 천연지하암반수를 이용해 700년 전통의 술 제조기법으로 전통술을 생산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에도 한 몫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추구를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다양한 인증 획득으로 대표적인 세계 주류 품평회와 국내 주류 품평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해 그 품질을 인정 받은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외에도 제주섬은 사용한 재료의 잔여물을 지역 농가에 배포해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게 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고용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천 양진사 희망기금 500만원 기탁



조천 양진사(주지 선법스님)는 14일 제주농협농축산인행복나눔운동본부(공동대표 변대근·이창철)에 이웃사랑 희망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선법스님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된 것으로 대풍, 장마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 기탁식에 참석한 양진사 신도는 "농협에서 거래하던 중 농협희망기금 모금 캠페인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개발협력 ODA 온라인 사진전



제주대학교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는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기념해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https://jjidcc.modoo.at/>)에서 '국제개발협력-빈곤과 보건'을 주제로 국제개발협력 ODA(공적개발원조) 온라인 사진전'을 연다. 사진전 기간 이벤트 참가자에게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앞서 16일 오후 3시에는 제주대 본관3층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제6회 제주국제개발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동정



김만덕상 시상식 관계자 격려

◇문종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는 18일 사라봉 모충사 경내 김만덕 묘탑 앞에서 열리는 '제41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고태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5일 아라동 관내에서 실시되는 '아라동새마을부녀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



동충초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6일 동충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동충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할 예정이다.

플루티스트 김진홍 프랑스 콩쿠르 수상

제주 출신 플루티스트 김진홍(30·사진)씨가 최근 파리시립음악원에서 열린 프로디지 아트(Prodige Art) 콩쿠르에서 피콜로 슈페리에 부문 1등상을 수상했다.



김진홍씨는 제주대 졸업 후 프랑스 쟈느빌리에 국립음악원(Conservatoire de gennevilliers)에서 전문연주자과정(Dem)을 마쳤고 크레페이 음악원(Conservatoire de creteil)에서 피콜로 전문연주자과정을 공부했다. 현재 쟈느빌리에 음악원에서 플루트 최고연주자과정(Perfectionnement), 플라마 국립음악원(Conservatoire de clamart)에서 피콜로 최고연주자(Perfectionnement)과정을 수학하고 있다. 한국에서 김경택, 안병주, 허대식을 사사했다.

술동산문학회 주관 김광협 추모문학제

서귀포 출신 김광협 시인(1941~1993, 사진) 27주기 추모문학제가 술동산문학회(회장 강승원) 주관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 천지연 김광협시비 앞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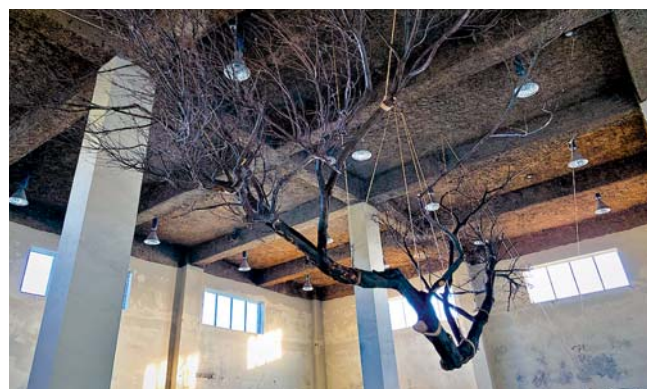
술동산문학회는 한국문단에 족적을 남긴 김광협 시인의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추모문학제를 열어왔다. 6회째인 이번 문학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문학 연보 소개, 윤봉택 시인의 회고담으로 듣는 김광협 시인의 제주문학에 끼친 이야기, 김하월 서귀포무용협회장의 진혼무가 마련된다. 2부는 한성국 시인 등 술동산문학 동인들이 김광협 시인의 마지막 시집 '산촌서정'에 수록된 '종소리' 등 8편을 낭독하고 카노푸스음악회 후원으로 추모곡 '그날에' 등을 들려준다.

우도 담수화시설 예술공간 변신

2011년 광역상수도 공급 이후 유휴시설 제주시 예비문화도시 사업으로 특별전

제주시가 예비 문화도시사업의 하나로 멈춰있던 우도 담수화시설에 예술의 향기를 불어넣었다.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펼쳐지는 '우도, 수리수리 담수리' 특별전이다.



우도 담수화시설 설치 작품 한석현의 '백록 구실짓법나무'.

우도 담수화시설은 1998년 건립 후 2011년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때까지 우도 사람들의 유일한 식수공급원이었다. 제주시는 오랜 기간 유휴시설로 방치됐던 그곳에서 문화도시 전략거점사업의 하나로 우도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를 기획했다.

참여 작가들은 이 전시를 위해 1-2개월 우도에 머물며 섬에서 얻은 느낌을 담아냈다. 우도민이 바라보는 우도에 대한 생각을 채집한 미디어 작품(우도컬렉티브), 우도의 자연과 삶을 풀어낸 음악(방승철),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백록담 설화를 입힌 설치(한석현), 해녀들의 생업 장소이면서 목숨을 앗아가는 바다의 양면성(이

진아),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우도(장준석), 담수장 산업폐기물을 디자인으로 재생(굿스굿스 MSG)하는 등 우도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전시 관람은 30분 이내(10명 미만)로 제한된다.

김병수 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은 "담수화시설이 문화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해당 시설을 활용한 주민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서귀포시산림조합 노인회 발전기금

서귀포시산림조합(조합장 오형욱)은 14일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지회장 강창익)를 찾아 노인회 발전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오형욱 조합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노인회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성금을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고객님의 모시겠습니다."

만배성 한정식

양만배 **조리기능장(Master Chef)**이 어머님의 손맛처럼 만배(萬倍)로 정성(精誠)을 다하여 마련한 만배성한정식 (萬倍誠韓定食)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습니다.

예약문의 Tel. 712-6800
제주시 아연로 484-9(아라1동)



한국조리기능장
양만배

1층 만배성 밥집(10:00 ~ 15:00)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피로하고 지친분들을 위해 만배성 밥집만의 기력회복에 좋은 신선하고 건강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1층 돌잔치 예약 받습니다 → 1인 15,000원)

식사료		일품요리	
가마솥영양밥+불고기	12,000원	도가니탕	12,000원
가마솥회비빔밥+불고기	12,000원	소머리곰탕	8,000원
가마솥야채비빔밥+불고기	9,000원	차돌된장찌개	8,000원
궁중해장국효종갱	12,000원	소불고기	10,000원
왕갈비곰탕	12,000원	도미머리미역국	10,000원
인삼꼬리곰탕	15,000원		

2층 만배성한정식 코스요리(11:00 ~ 22:00)
상견례, 칠순, 팔순, VIP접대, 각종 연회 및 모임 등을 행사 취향에 맞는 메뉴를 마련하였습니다.



특A : 1인 70,000
A : 1인 50,000
B : 1인 40,000
C : 1인 30,000

점심특선 한정식 1인 20,000

※ 모든 요리에는 갖지은 **즉석가마솥밥**이 제공됩니다.